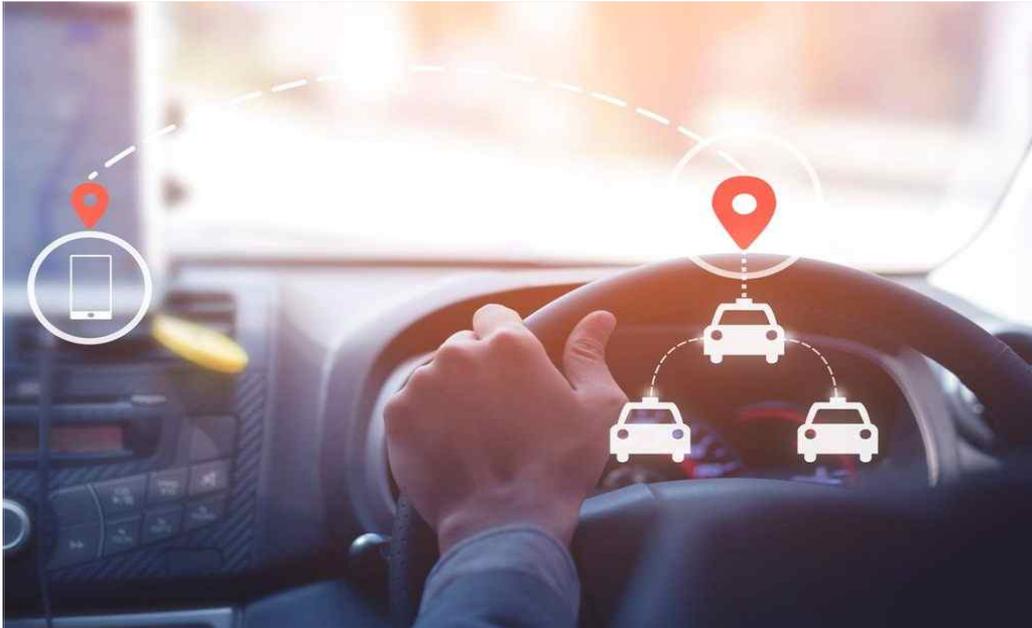


글로벌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전략적 분석, 2030년 전망

“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,
2030년까지 글로벌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을 1조 5,500억 달러까지 성장시킬 전망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Society's Call for Sustainable ... by 2030, Dec 9, 2020

-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의 가치가 코로나-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 - 도시 인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형 모빌리티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
 -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또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에 큰 기여
- 여러 성장 요인 덕분에 글로벌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은 2020년 7,31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5,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
 - 지난 10년 동안 도심에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 등장하며,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음
-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,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힘입어 공유형 모빌리티는 더욱 지속할 수 있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변화함
 - 공유형 모빌리티 시장의 경우 코로나-19 사태와 각종 시설의 봉쇄령으로 인해 예약과 여행 관련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체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곧 회복할 것

- 단기적으로 공유형 모빌리티 업계는 필수 상품 배송과 같은 수요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공유형 모빌리티를 이용한 상품 배송 사업은 중기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큼

❏ 도시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대중교통, 수요 응답형 교통(DRT) 및 서비스형 모빌리티(MaaS)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앞으로는 공유형 모빌리티에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도 향상될 전망

❏ (결론) 부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관련 시장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

- 1인용 공유형 모빌리티: 공유형 모빌리티 업계는 코로나-19 이후의 수요가 대중교통에서 1인용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활용해야 함
- 공유형 자전거: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안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이에, 각 도시는 비상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
- 라스트 마일 배송: 승차 호출 서비스 및 자동차 공유 기업의 차량은 의료용품 및 필수품을 배송하고 코로나-19로 인한 사회적 봉쇄령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P2P 택배 서비스로 용도를 전향해야 함
- 업무용 모빌리티: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는 코로나-19 이후에도 임직원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중인 차량의 설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자율주행 모빌리티: 각 도시와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더 다양하게 시행해야 함
- 서비스형 모빌리티: MaaS 제공업체는 잠재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
 - 아울러, 안전 예방책, 가격 투명성,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 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 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